



현대건설 창립 71주년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The 71st anniversary of Hyundai E&C

Hyundai E&C built roads and bridges in the ruins of the Korean War. It mad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far away from home, to construct buildings and turn the sea into land. What Hyundai E&C has been through is the history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Behind all this lies efforts and passion of Hyundai E&C's employees who have worked relentlessly. Hyundai E&C marks its 71st anniversary this year, and it is standing at a new starting line. We, all employees of Hyundai E&C, are witnesses of its history and also driving forces for the future. ▶ Continued on page 4, 5, 12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다. 이역만리(異域萬里)의 땅에 건물을 짓고 바다를 매워 땅을 만들었다. 현대건설이 지나온 길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난 임직원의 '땀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지금, 현대건설은 또 다른 출발선상에서 있다. 우리 모두가 현대건설 역사의 산증인이자 미래의 주역이다. ▶ 관련기사 4-5면, 12면



Hyundai E&C celebrates its 71st anniversary Moving forward for the better future

Hyundai E&C took the first step under a small sign reading "Hyundai Togun" on May 25, 1947. This year, Korea's primary builder marks its 71st anniversary. Since its foundation, Hyundai E&C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as a key player in driving the country's growth.

Hyundai E&C has been described with superlatives: It entered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by receiving an order to build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in Thailand in 1965. It broke 100 billion dollars in cumulative overseas sales volume in 2013 and posted operating profits of over 1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2015.

"The Hyundai Spirit, summarized as creative foresight, determined enthusiasm and strong initiative, has served as the biggest driving force behind today's Hyundai E&C," CEO Park Dong-wook delivered his commemorative speech in the celebration event held in the head office, Gye-dong, Seoul, on May 25. CEO Park added that individual employees must become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leading their colleagues to lay the foundation to grow into a sustainable company.

창립 71주년... '강인한 추진력'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하다

1947년 5월 25일 '현대토건사'로 첫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이 창립 71주년을 맞이했다.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성장연대의 일등 주역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현대화, 글로벌화를 이끌어 왔다. 국내 첫 해외 진출 사업인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수주'부터 2013년 '국내 최초 해외공사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 2015년 '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원 달성'까지 현대건설의 사명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함께였다.

5월 25일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71주년 창립 기념식사에서 박동욱 사장은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으로 요약되는 '현대정신'이 아마도 오늘의 현대건설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사장은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은 강인한 추진력, 즉 실행력에서 차이가 난다"며 "명확하지 않은 업무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솔선수범해 주위 동료들을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사장은 "올해 경영 방침인 '이해관계자들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완수해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리더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창립 71주년을 계기로 '현대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도 전적 실행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톱 티어'를 향해 전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그룹웨어 개인 응원 메시지 팝업 ▶동료와 함께 사진&사연 올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창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Hyundai E&C strengthens disaster and safety-related CSR activities

Signing MOU on May 23

Our compan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Plan Korea,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 the Construction Industry Found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Blue Industry, a social enterprise, in Construction Building, Seoul, on May 23 with a bid to promote disaster and safety-re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This agreement was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SR activities and perform them in a more efficient way by joining forces with variou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safety.

In addition to providing financial support, our company is planning to develop and operate an educational business model, develop and offer safety supplies, cultivate social enterprises, and hir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disadvantaged by joining hands with the participating companies.

Our company will develop programs designed to provide safety education in disaster vulnerable areas, raise awareness of disasters and prepare for catastrophic incidents, together with Plan Ko-



rea. Starting in last December, our company sent researchers in civil engineering, bridge construction and geology and a group of employees to

the earthquake stricken Pohang area for two months to provide safety inspections of major bridges and roads in the area.

현대건설,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 강화한다

5월 23일,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기관과 MOU 체결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

우리 회사는 5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플랜코리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블루인더스(사회적기업) 등과 재난안전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에는 우리 회사 김형일 글로벌마케팅본부장,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이상주 플랜코리아 대표, 최윤호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부이사장, 정천식 블루인더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관련 사업비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참여 기업들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개발 및 전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회사는 플랜코리아와 재난 위기 지역 내 안전 교육·재난 의식 고취 프로그램·재해 상황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토목, 교량, 지질 분야 연구원과 직원들을 재난 지역인 포항에 직접 파견해 주요 교량과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8’ 2관왕

우리 회사가 5월 22일 싱가포르 건설부(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가 주관한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8’에서 품질 우수 건설사 부문(QEA·Quality Excellence Award) 대상과 우수 준공 현장 부문(CEA·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대상(Platinum)을 차지한 품질 우수 건설사 부문(QEA)은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4년, 2015년에는 최우수상(Gold Plus)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시공 품질, 공기 준수, 안전 사고율, 생산성, 친환경성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우수 준공 현장 부문(CEA)에서 ‘싱가포르 럭키타워 콘도미니엄’ 현장이 상업·복합개발 부문 최우수상(Merit)을 수상했다.

한편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은 현지에서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공·친

환경·설계·안전·품질 등 총 10개 분야별로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1997년 ‘썬텍시티’를 시작으로 총 27회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설계·안전·품질 등 총 10개 분야별로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1997년 ‘썬텍시티’를 시작으로 총 27회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 ARAMCO 230kV 송전선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Saudi Electricity Company)이 발주한 7380만 달러 규모의 230/69kV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동부 하라드(Haradh)와 하위야(Hawiyah) 지역 내 총 연장 약 340km의 송전선로 건설공사로,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도급 공사다. 공기는 24개월이다.

우리 회사는 1982년 Al Aquiq-



Benisar 132kV Transmission Line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에서 40여 건의 송·변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송전선 및 변전소 분야 총 13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협력사 상생펀드 대출 상담회

우리 회사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계동 본사에서 ‘협력사 대상 상생펀드 대출 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협력사 생산성 향상, 상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동반성장펀드(300억원)’ 외에도 직접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중소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자금 지원 기회를 구매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며 “2주간의 사전 신청 기간 동안 50여 개의 협력사가 대출을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5월 23일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초창기 사회적 기업에 팀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12개월간의 창업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회적 기업의 구매 판로 및 연계를 돕는 한편 오는 7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 기업관을 열어 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2019년형 스티어링 출시



기아자동차가 2019년형 스티어링을 출시했다.

스티어링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장르를 구축한 기아자동차 최초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2019년형 모델은 ▶디자인 개선 ▶고급 사양의 운영 확대 ▶사양 조정을 통한 고객 부담 최소화 ▶스티어링 전용 커스터마이징 패키지 추가 등을 통해 스티어링만의 차별화된 고급 감성을 더 많은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스티어링의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급 사양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티어링의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역발전소 현장 준공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역발전소 현장이 47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5월 7일 준공했다.

2014년 5월 첫 삽을 뜬 현장은 수마트라의 주요 도시로 꼽히는 메단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사물라 지역에 지역발전 110MW 3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설계·자재·설치·시운전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현장 관계자는 “매일 한 차례 이상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낙후된 도로 상황으로 자재 및 인력 수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직원이 합심해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무사히 준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Korea's first American home reopens its doors

May 21

WASHINGTON - A little less than a mile away from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on the northern corner of the 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 is a red brick Victorian-style building standing three stories high. The building, once home to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opened its doors to the public once again on May 21, local time, as a museum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Old Korean Legation building used to house Joseon (1392-1910) diplomats to the U.S. from 1889 to 1905, but was sold to the Japanese government for \$5 in 1910, which immediately sold it off to a private U.S. for \$10. It took the Korean government 102 years to buy it back at a price of \$350,000 in 2012, when it began a six-year renovation. After careful research of old photographs and documents, the heritage administration restored the building to the way it used to stand a century ago. The renovation was complete on March 12.

The building was first built in 1877 and was used as building for Korean diplomats beginning in February 1889 after Korea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1882 with the Korean-American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The Korean legation bought the building in 1891 for \$25,000, and it officially became the only foreign legation building owned by the Joseon government.

Opening the steel front doors, the kitchen sits on the right side with a large-sized Taegukgi (Korean flag) hanging on the entrance, and a colorfully decorated reception room sits on the left. With silk chairs and sofas, a folding screen and cushions embroidered with the Taeguk mark, the reception room has been set up as it had been before it exchanged hands, with photographs of the ninth diplomat Yi Beom-jin's family set up on the table. The third floor has



1 The Old Korean Legation building has been renovated based on photographs and documents from the past. 2 The photograph of the building taken in 1893. 3 The building returned to Korea 102 years after it was sol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10.

been turned into an exhibit hall to show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building.

Park Chung-yang, the first Korean diplomat to the United States, had to stay in a private house. The second diplomat Yi Ha-young became the first person to be housed in the legation building in 1889. Yi used to be the royal doctor to King Gojong (1852-1919) and also an interpreter. Park and Yi carried out secret missions given by the King for the independence of Jos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ark had met with President Grover Cleveland to pass on a secret document from King Gojong and Yi held extravagant par-

ties to lobby the U.S. government to dispatch their army to Korea.

"The legation building is meaningful in that it symbolizes the independent ideology of King Gojong, who tried to open up a broader diplomatic horizon," sai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a press release. The building will be open to the public every day except for Mondays, from 10 a.m. to 5 p.m., for free. Staff members will speak both Korean and English. Reservations can be made both on-site and online, at www.oldkoreanlegation.org.

By KOREA JOONGANG DAILY

BTS conquers top spot on Billboard 200

May 28

K-pop powerhouse BTS achieved another first: "Love Yourself: Tear," its third album, debuted at the top of the Billboard 200 chart. The all-genre chart measures the 200 most popular records in the United States every week based on multimetric consumption, which includes traditional album sales, track equivalent albums and streaming

equivalent albums.

This comes only a week after the boy band became the first Korean band to perform live at the 2018 Billboard Music Awards, where the group took home the Top Social Artist award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award is based on votes from fans on both the Billboard's website and Twitter.

By KOREA JOONGANG DAILY



Kia unveils upgraded Sportage with diesel mild-hybrid powertrain

Kia Motors has revealed the upgraded Kia Sportage May 23, introducing a range of enhancements to the brand's European and global best-seller. The new model pairs an updated exterior and interior design with new safety and infotainment technologies. Powertrains are also fully-compliant with future emissions standards. The Sportage's advanced new EcoDynamic+48V



diesel mild-hybrid powertrain is the first to be launched as part of the brand's global powertrain electrification strategy.

Haevichi Jeju Appoints Paul Semboshi as New Executive Chef

Haevichi Hotel & Resort Jeju has appointed Paul Semboshi as new Executive Chef of French fine dining restaurant Milieu. Japanese-born Paul Semboshi is a graduate of Paris's illustrious Cordon Bleu academy. Chef Semboshi built his career in France for 11 years in the kitchens of leading chefs such as Eric Frechon and Eric Briffard,



both holders of the prestigious Meilleur Ouvrier de France (MOF) title. Chef Semboshi's career encompassing work at restaurants in several premier Parisian hotels, including Ritz Paris and Four Seasons. At the Four Seasons, he was the first Asian to be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sous-chef, an achievement that testifies to his exceptional talent.

10 Minute Korean Lessons

At the Airport



▶ Departures

환전 어디서 해요?

Where can I exchange some currency?
Hwahn-jawn aw-dee-saw heh-yo?

3층으로 가시면 돼요.

Please go to the 3rd floor.
Sahm-cheung-eu-ro gah-sheemyuhn dweh-yo.

▶ Other expressions

체크인

Check-in
cheh-keu-een



출국 심사

Immigration
chool-gook sheem-sah



환승

Transfer
hwahn-seung



휴대폰 충전

Phone charging station
hyu-deh-pon choong-jawn



▶ Related phrases

기념품/면세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souvenirs/duty-free goods?
Gee-nyuhm-poom/myuhn-seh-poom aw-dee-saw sahl soo ee-saw-yo?

이 비행기는 몇 번 게이트에서 탑승해요?

What is the gate number for this flight?
Ee bee-hehng-gee-neun myuht bbawn gay-ee-teu-eh-saw tahp-sseung-heh-yo?

얼마나 지연됐어요?

How long has it been delayed?
Awh-mah-nah jee-yuhn-dweh-ssaw-yo?

제가 타는 비행기 편명이 전광판에 없어요.

The flight number I am taking is not on the screen.
Jeh-gah tah-neun bee-hehng-gee pyuhn-myuhng-ee jawn-gwahng-pah-neh awp-ssaw-yo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Interviews with six employees

“We build tomorrow for Hyundai E&C”

Q Our company marks its 71st anniversary.

Kim Sung-sil GJ (Kim) Each year, the foundation anniversary makes m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Hyundai E&C.

Cho Jung-ho DR (Cho J. H.) It's 71 years! I believe Hyundai E&C will celebrate its centenary, bicentenary anniversaries.

Cho Eun-je DR (Cho E. J.) Seven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I joined Hyundai E&C and worked together with my colleagues. I wish I become a part of the future of this company as an excellent professional.

Ahn Yong-su SW (Ahn) I'll learn hard and improve my ability to help Hyundai E&C maintain its reputation when it marks its 100th anniversary.

Lee Seung-beom SW (Lee) I've worked for Hyundai E&C for about three months. I look forward to more founding anniversaries to come, which will be more meaningful to me.

Kwak Dae-hyun SW (Kwak) I'm very grateful and pleased that I am able to celebrate the 71st anniversary as a member of Hyundai E&C.

Q What made it possible that Hyundai E&C has been operating for 71 years?

Ahn I'm sure that our patience and challenging spirit are the power of today's Hyundai E&C and the driving force towards our future.

Kim I'd like to say that the competitiveness of Hyundai E&C comes from "people." Experience amassed by individual employees working at construction sites is the most valuable asset of our company.

Q Could you share your ambition and plans as a future leader of Hyundai E&C?

Kwak We'll have a more number of international employees over time. I look forward to having more chances to speak Spanish which is my major in university. I'll develop my abilities to have a needed t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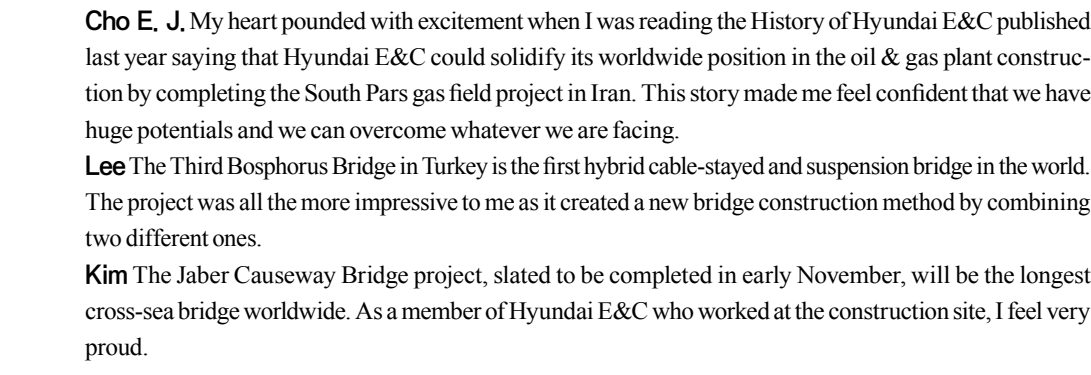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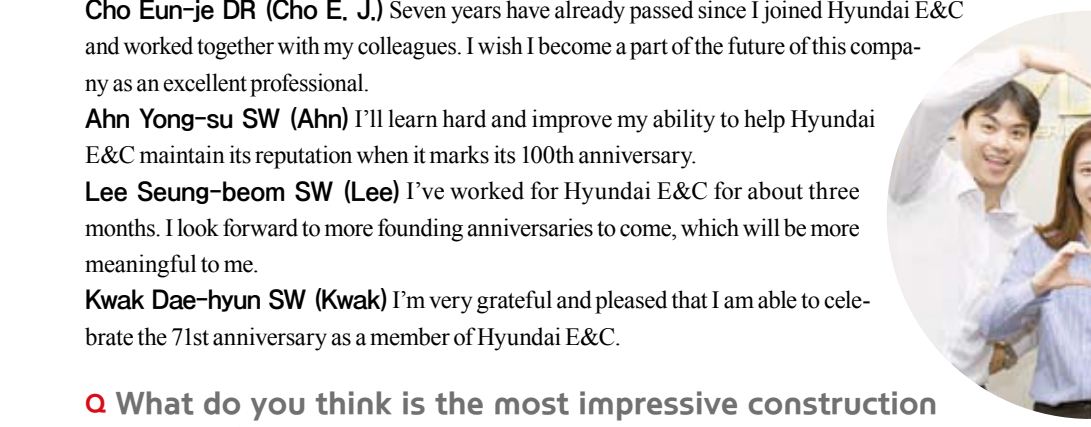
Ahn I want to be head of a department in the future. I'll do my best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Lee I guess I probably have meetings with local companies at an overseas construction site on my 10th year. I'd like to participate in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construction projects. Our company is already well known for maritime and port construction. I hope Hyundai E&C will take the initiative in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areas. It would be perfect if I would play a central role in the future.

Kim I believe 100-year-old Hyundai E&C will be totally different from now. Overseas construction sites will be localized so that a few number of Korean employees will work together with a lot more number of global employees. Moreover, our company may engage in new businesses other than construction areas. I will be a person who can make fresh ideas to keep abreast with what the company needs.

Cho E. J. I gues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individual employees will be transformed into data, which is happening in global leading construction companies. Our company is embarking on such datafication. And all employees will be able to communicate, cooperate and share things in a more natural and free way. I'll make diversified efforts to help Hyundai E&C grow in to a leading company.

Cho J. H. I once imagined I would be in charge of promoting the Hillstate Pyeongyang project. I am confident that Hyundai E&C in the future will have a more elevated status in the global market. I will work hard to hav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왼쪽부터 조정호 대리 (도시정비사업실), 김성실 과장(역량강화TF), 이승범 사원(토목해의 사업실), 조은제 대리(플랜트설계지원실), 안용수 사원(재무관리실), 광대현 사원(인사실).



History

현대건설 71년 역사 속 주요 해외 프로젝트 숨은 뒷이야기

정사(正史)보다 야사(野史)가 더 재미있는 법이다. 세계 속에 랜드마크를 짓기 까지 숨한 어려움을 겪은 현대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비하인드 스토리.



태국 파타나 나라티왓 고속도로(1966~1968년)
첫은 골재를 건조기 대신 철관에 구워서 말려 태국은 강수량이 많은 나라다. 젖은 모래와 자갈을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에 섞으면 함수량이 맞지 않아 고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지 않았다. 현장 직원들이 2~3개월간 고심한 끝에 건조기에 넣고 자갈을 넣어 말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기름 값이 많이 드는 데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상황을 본 정주영 사장은 "비싼 기름으로 건조기를 돌릴 필요가 있느냐, 골재를 철관에 넣고 구워 말리라"고 지시했다. 과연 건조기를 이용할 때보다 생산능률이 2~3배 나 높았다. 이 공사는 우리 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록 수지는 안 맞았지만 '세계 속의 현대'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1984~1992년)
걸프전의 전운 이겨내며 걸작 시공 사우디 내무성 본청은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현대건설의 해외 건축 역적이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본체 위에 이슬람 사원 모양의 돔을 세운 형태로, 건축 엔지니어라면 도전 욕구를 느낄 만한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프로젝트의 난공사는 철골 캔틸레버 트러스(Cantilever Truss)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설계자가 요구하는 300mm 캔버(Camber)에 맞추기 위해 매시간 변화를 체크해 돔의 곡선을 그렸다. 공사가 막바지일 때는 걸프전의 전운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나들었다. 현지인조차 피란을 떠날 때 우리 직원들은 곳곳하게 현장을 지켰다. 그렇게 현장 직원들의 혼을 싣고 리아드 최고의 랜드마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2단계 매립(1993~1999년)
20만 달러 불도저 한 대 깎벌 속으로 가라앉아 이 공사는 기존의 2개 활주로와 연하여 제3의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부지 매립 프로젝트였다. 우리 회사는 기존의 시멘트 고결공법 대신 모래를 깎벌 속에 깔아 침전시킨 후 수분을 제거해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새로운 실트펀드 매립공법을 선보였다. 그러면 중 모래를 살포하던 불도저가 한쪽 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운전자가 빠르게 탈출해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20만 달러 상당의 불도저는 불과 몇 분 만에 깎벌 속으로 사라졌다. 작은 사고가 있었으나, 회사는 이 공법으로 2000만 달러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약 18년 동안 매립 공사를 통해 싱가포르 전체 국토의 6%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장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4-5단계(2002~2004년)
불에 탄 배출가스 연소탑 100일 만에 완벽 복구 이란 사우스파 4-5단계 공사 현장에는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 연소탑)이 두 개 있었다. 그런데 한 개의 플레어 스택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예정 공기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우리 회사는 발주처에 100일 만에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후 약 1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설계부터 자체 발주까지 모든 것을 일주일 만에 끝내고 플레어 스택 제작도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 40일 만에 완성했다. 한국에서 이란까지 플레어 스택을 옮기는 일은 육해공을 모두 활용했다. 덕분에 약속한 기일 안에 시공을 마친 것은 물론, 예정 공리보다 1개월 빠른 35개월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UAE 미르파 도심 복합화력발전소(2014~2017년)
특유의 돌파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다 현장은 발전 시장에선 전례가 드문 '화력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공사가 동시에 수행된 프로젝트였다. 10년간 방치된 가스터빈 4대를 개·보수한 뒤 설치·시운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데다 까다로운 DAFRA(UAE 차관 관리법) 규정에 맞춰 작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우리 회사는 아무다비 사무처의 허가를 얻은 전문 인력을 별도 소집해 긴급 투입하고, 속도와 별개로 현장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24시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1m 높이의 거푸집에 '만여' 분량의 콘크리트를 오차 없이 한꺼번에 타설해 3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가 하면, 현장에서 발행하는 사토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해 22억원가량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위기를 타개했다.

71st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1947-2018

입사 7·1년차 사원 6인 인터뷰 “현대건설의 멋진 미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현대건설 창립 71주년을 맞아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7년차 과장, 대리들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년차 사원들을 만났다.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 바라고 꿈꾸는 회사의 미래까지... 입사 7년차와 1년차가 그리는 현대건설의 내일 이야기. 글=박현의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의 71년 역사를 말하다

Q 회사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성실 과장(이하 김성실)** 면접에서 “현대건설이 올해 창립 몇 주년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회사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죠. 창립기념일 때마다 그날의 질문과 함께 회사의 역사를 반추하게 되네요. **조정호 대리(이하 조정호)** 무려 창립 71주년이에요! 우리 회사라면 100주년, 200주년도 거뜬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은제 대리(이하 조은제)**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어느덧 7년차가 됐네요. 멋진 모습으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용수 사원(이하 안용수)** 71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에 입사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답을 준비했는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드네요(웃음). 100주년에도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의 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키워주세요! **이승범 사원(이하 이승범)** 부서에 배치된 근무한 달수를 따져 보니 3개월차가 되었더라고요. 72주년, 73주년 등 해를 거듭할수록 창립기념일이 더 큰 의미를 다가올 것 같아요. **광대현 사원(이하 광대현)** 71주년을 현대건설의 한 일원으로서 축하할 수 있어 무한히 감사하고 기쁘요. 100주년에도 창립기념일을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Q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면 베테랑이 된다고 해요. 7년차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닐까요?

조정호 도시정비사업2팀으로 팀을 옮긴 지 2년쯤 돼요. 그 전에는 주택사업부에서 채권 업무를 했죠. 지금 하는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무척 유동적이에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법이 바뀌고, 주택시장은 변화무쌍하죠. 업계 흐름을 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 이 분야의 프로가 되어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김성실** 저 역시 한 가지 일반 해오지는 않았어요. 설계 업무와 해외현장 공사 업무를 거쳐 현재 토목사업본부 사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죠. 다음은 국내 현장에서 공부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어느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어야겠다는 판단은 대략 10년차가 되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은제** 플랜트 배관 견적 일을 하다 설계 쪽으로 넘어온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설계를 하면 도면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씩 공정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앞으로 7년은 더 일해야겠죠? 누군가 “플랜트 배관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1년차들이 7년차 선배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요?

안용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잠만 자게 돼요. 선배님들은 퇴근 후 무엇을 하시나요? **김성실** 미혼일 때는 개인 취미 활동을 했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미혼인 사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부동산·증권 등 지터크를 공부하길 추천해요. 매일 10분씩이라도 탐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몇 년 후 무척 크게 거든요.

광대현 경기도 과천시 집인데 자취를 할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조정호** 저도 결혼 전에는 경기도 부천의 부모님 데에서 출퇴근했어요. 독립해 봤자 몸만 상하고 돈 모으기도 힘들어요. 빨리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현장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웃음). **이승범** 사회 초년생으로서 팀에 잘 적응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업무 특성상 타 부서에 요청할 일이 많은데, 지혜롭게 부탁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조은제** 특히 초년차 때는 전화나 메신저보다 대면으로 업무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또 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팀의 각 선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파악해 두면 도움을 청하기도, 받기도 쉬워지거든요.

Q ‘현대건설인’으로서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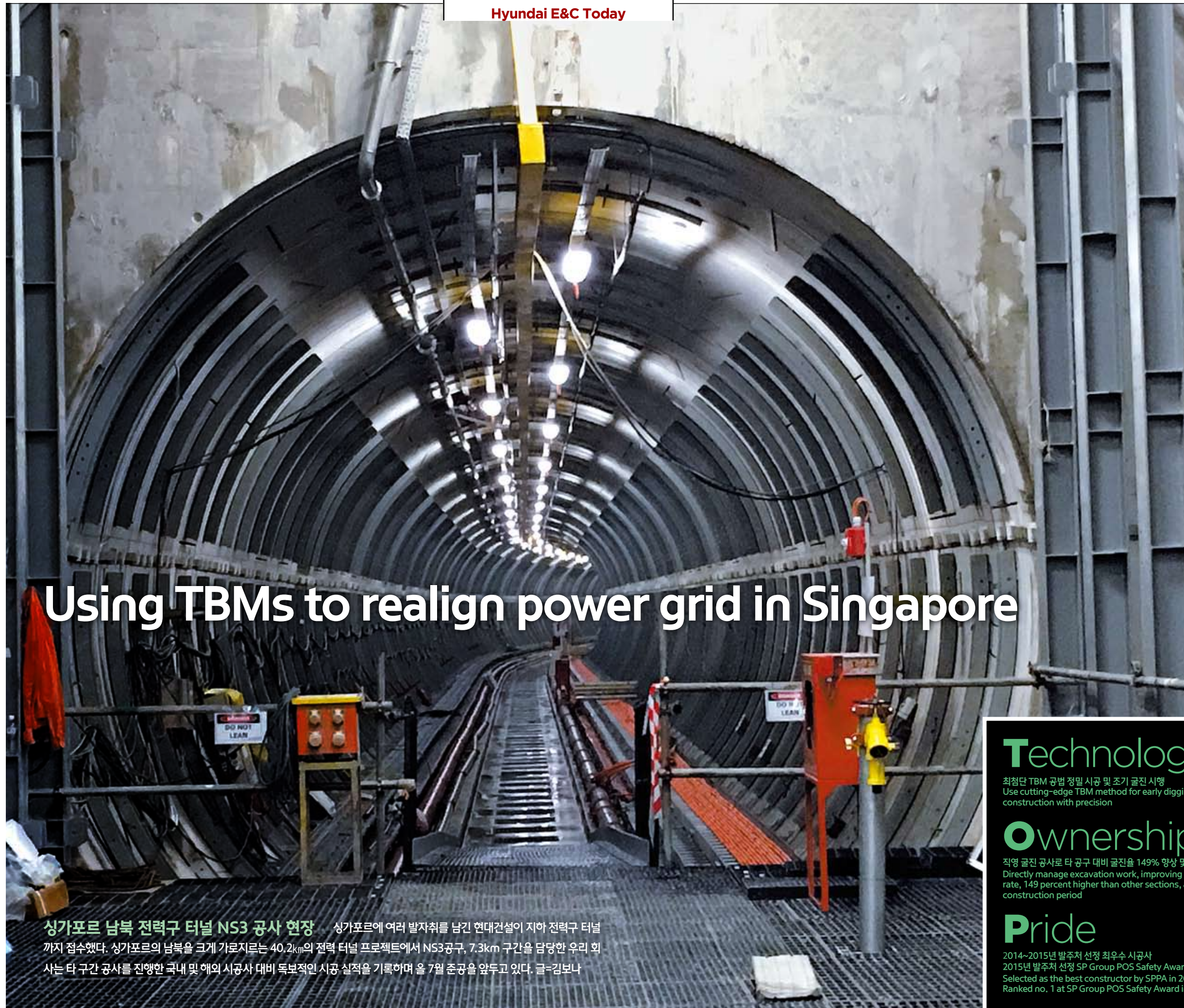
광대현 합격 통보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알린 날, 외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견하다. 최고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구나”라고 해주셨어요. 무척 행복했죠. **김성실** ‘구글 어스(Google Earth)’로 보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이 보여요. 올 연말에 준공하면 세계 최장 해상교량이 되죠. 저 역시 이 현장에서 2014년부터 약 2년간 근무했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해요. **조정호** 지난해 반포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을 때가 기억나요. 한강변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짓는 기념비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건축사업본부의 어느 한 팀이 수주한 것이 아닌 현대건설 전 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해낸 자랑스러운 순간이죠.

Q 현대건설의 71년을 만든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용수 끈기와 도전정신이 현대건설의 오늘을 만든 힘이자 내일을 만들어 갈 원동력 아닐까요? **김성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100%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시너지가 현대건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나은 미래를 상상하다

Q 1년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입사 전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승범**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아저는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광대현** 학생 때는 방과 후나 주말에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요(웃음). **안용수** 생활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밤 10시30분쯤 자서 새벽 6시에 기상하는데요. 수면시간이 규칙적이니까 삶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Using TBMs to realign power grid in Singapore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터널 NS3 공사 현장 싱가포르에 여러 발전기를 남긴 현대건설이 지하 전력구 터널까지 점수했다. 싱가포르의 남북을 크게 가로지르는 40.2km의 전력 터널 프로젝트에서 NS3공구, 7.3km 구간을 담당한 우리 회사는 타 구간 공사를 진행한 국내 및 해외 시공사 대비 독보적인 시공 실적 을 기록하며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글=김보나

Technology
최첨단 TBM 공법 정밀 시공 및 조기 굴진 시공
Use cutting-edge TBM method for early digging construction with precision

Ownership
직영 굴진 공사로 타 공구 대비 굴진율 149% 향상 및 공기 단축
Directly manage excavation work, improving excavation rate, 149 percent higher than other sections, and reducing construction period

Pride
2014~2015년 발주처 선정 최우수 시공사
2015년 발주처 선정 SP Group POS Safety Award 1위
Selected as the best constructor by SPPA in 2014~2015
Ranked no. 1 at SP Group POS Safety Award in 2015

TBM 공법으로 준공한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NS3 전선.

Hyundai E&C received the NS3 section of the North-South transmission cable tunnel project in 2012 from the Singapore Power Asset (SPPA) in recognition of its extensive experience in MRT and other construction projects in Singapore. The builder kicked off the construction in October 2012. The project is to bore through a 40.2-kilometer transmission cable tunnel connecting the city state from east to west and from north to south. The 7.3-kilometer NS3 section extends from May Road, where the east-west section meets the north-south section, to Mary Mount and Ang Mo Kio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The large-scale project is valued at 238.9 m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260 billion won. The completion of the new cable tunnel in coming July is expected to guarantee a better power supply in Singapore by replacing old power lines with a 400 kV high voltage cable. There are two types of tunnel construction methods. One is drilling and blasting, and the other is using a huge excavation machine called tunnel boring machine (TBM). The TBM method employs a cylinder, called shield, seven meters in diameter so as to excavate a tunnel in a way that prevents the ground from collapsing and produces a smooth tunnel wall. TBMs have the advantages of enabling the stable construction of tunnels with weak ground conditions, reducing construction periods and decreasing risks of accidents.

For this project, Hyundai E&C operated a total of three TBMs. In general, a TBM has a drilling capacity of three to four meters per day. However, the TBMs in the NS3 section moved at a daily average of 5.49 meters, about 149 percent higher than the excavation rate of those operated by other construction sections. This is attributable to Hyundai E&C's efforts to directly manage the excavation work and the operation rate of the machines. The North-South transmission cable tunnel construction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tunnel projects as it is a specialized facility designed to transmit power. The construction section is about two times deeper than the 30-meter-deep MRT tunnels. Moreover, the tunnel has a relatively long service life of about 100 years. Because of all this, the construction materials and facilities employed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used for general tunnel construction since they should withstand both water and air pressure at a depth of 60 meters below ground surface. The company's Quality Control Team made all-out efforts to supply construction materials with longer endurance period and better specifications and conduct several quality-related tests. Despite the hectic schedule, the construction site did its best to ensure safety management. Even before the construction began, the construction site meticulously prepared for safety management plans. Throughout the construction period, it held weekly and monthly meetings and conducted frequent inspections to let safety management take root and discuss how to improve related issues at work. As a result, the NS3 section took first place at the SP Group POS Safety Award in 2015 and was ranked no. 1 in the safety inspection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conducted by construction bodies of Hyundai Motor Group in 2017.



1 TBM이 작동하는 모습. 우리 회사는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진흙 형태 '슬러리'의 압력을 이용해 막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슬러리 TBM 공법을 사용했다. 2 수직구 상부 터널 통기 및 운영을 위한 건축물 전경. 3 수직구를 통해 지하 막장에 TBM을 투입해 설치하고 있는 모습. 4 TBM 터널을 기념하는 세라미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현장 직원들.



TBM 기술력으로 싱가포르의 전력망을 재편하다

스카이라인, 해안선에 이어 지하 60m까지 현대건설이 책임진다

해의 여러 국가 중 싱가포르를 유독 우리 회사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는 곳이다. 1984년 플라우테콩 매립공사를 비롯한 매립·항만공사, 창이국제공항부터 최근의 마리나사우스 북합계발 등 각종 건축공사, MRT 북동선 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 공사까지... 그야말로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과 국토, 지하 공간까지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싱가포르 공사 경험과 MRT 공사 등의 관련 레퍼런스를 인정받아 2012년 싱가포르 전력청(SPPA)이 발주한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터널 공사 NS3 구간 수주에 성공했다. 싱가포르의 동서남북을 가로질러 총 연장 40.2km의 전력구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 중 NS3 구간은 7.3km. 동서와 남북 구간이 만나는 중간인 메이 지역부터 북쪽으로 메리마운트, 앙모키오까지 이른다. 현장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도심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각종 업무시설과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어 공사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귀띔했다. 2012년 10월에 착공한 공사는 지하 60m에 이르는 터널 공간에 내려가기 위한 수직구 2개소와 터널 관리를 위한 부속건물 2개소 등의 구조물 공사를 포함한다. 계약금은 2억3800만 달러(약 26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다. 터널이 완공되는 올 7월이면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이 400kV 고압 케이블로 교체돼 싱가포르 내 전력 공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TBM 공법 완벽 시공, 7개 공구 중 굴진율 1위

터널 공사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하에 폭약을 설치해 내벽을 파쇄하는 발파 공법이고, 또 하나는 터널보링머신(Tunnel Boring Machine)이라는 거대한 굴착 기계를 사용하는 TBM 공법이다. TBM은 직경 7m의 실드라는 원통을 추진시켜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을 하고, 후방에서 터널 벽면을 축조한다. 지반의 큰 변화 없이 약한 지반에서도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며 안전사고 위험도 적은 최신 공법이다. 대신 관리가 어렵고 고장 등으로 장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공사에는 구간별로 1대씩 총 3대의 TBM이 가동했다. 일반적으로 일일 굴진(掘進) 연장이 하루 3~4m 정도인데, 우리 회사는 일일 평균 굴진 연장이 5.49m로, 타사가 시공하는 타 공구보다 가동률이 약 149%나 높다. 타 공구와 달리 우리 회사가 직영으로 본 굴진 공정을 진행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가동률을 관리한 덕분이다. 또한 타 공구에서 몇 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과 달리 NS3 공구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단 한 건의 싱크홀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은 본 굴진 이전에 TBM 장비 일부만 지하에 투입해 조립하고 시운전으로 터널을 뚫고 TBM을 점차 조립해 나갔다. 이러한 TBM 조기 발진으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TBM은 직경 7m, 길이만도 약 100m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직구를 뚫고 TBM 조립을 위해 발파 작업으로 공간을 확보한 후 TBM을 설치해야 본 굴진이 이뤄지는데, 우리 회사는 지하에 최소한의 TBM 시운전 공간만 확보하고 바로 굴진에 돌입한 것이다.

시공뿐 아니라 TBM 운영과 관리도 성공적이었다. TBM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만 수천 가지에 이르는 만큼 부품 교체주기를 잘 살펴보고 점검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현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들의 교체주기를 예측하고 필요한 부분을 독일 등지에 선주문해 TBM 가동률을 높였다. TBM 1·2·3호는 각각 1년3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의 터널링 끝에 모든 터널 공사가 마무리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97%. 현장은 지상의 건축물과 터널 내부의 전기 통신 설비 및 소방 안전시설 설치 작업, 지상 공간 조명 및 도로 포장 등의 공정에 힘써며 계약기간 이전의 조기 완공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대표 터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것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터널은 전력 송신을 위한 특수 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터널 공사와는 다른 점이 많다. 구간별 연장이 길며, 깊이가 30m인 지하터널에 비해 약 두 배 깊다. 사용 기간 또한 100년 정도로 긴 편이다. 이 때문에 터널 공사 자체의 난이도는 물론 소방시설 등 운영설비 공사의 난이도도 높다. 자체나 시설물이 지하 60m의 수압과 기압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비교적 용이한 일반 터널과는 사용되는 자재가 전혀 달랐다. 품질팀은 발트 해나부터 터널을 잇는 세그먼트 쉘링, 케이블 지지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특수강에 이르기까지 내구연한이 길고 사양이 높은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품질 테스트도 여러 번 거쳤다. 굴진 중 지하수를 만나면 견한 수압으로 인해 TBM 커터날이 손상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 현장 직원들은 새벽 2~3시에도 부품을 구하기 위해 창고에 가거나 타 현장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공에도 현장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안전시공에 대한 발주처의 의지도 매우 강했다. 현장은 공사 착공 전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브리핑할 정도로 빈틈없이 준비했다. 공사 중에는 주간 및 월간 회의,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개선 사항을 끊임없이 논의했다. 안전점검에 힘쓴 결과 2015년 발주처가 실시한 SP Group POS Safety Award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그룹 내 건설계열사 합동현장 안전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공정과 품질, 민원 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까다로운 발주처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신뢰를 다져가고 있는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현장. 배준모 현장소장은 "현대건설의 지하 개발사업 능력을 싱가포르 및 전 세계에 알리는 참병으로서 차기 공사 수주에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도록 이번 공사에 힘쓸 것"이라며 준공을 앞둔 각오를 다졌다.

Interview

현장 전반 관리부터 발주처 소통까지 OK 현장소장 배준모 부장대우



2017년 공무부정으로 현장에 부임한 배준모 부장대우는 공사 관리 및 대관 업무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4월 현장소장에 임명됐다. 준공 막바지에 이르러 공사 및 안전 업무까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발주처와 다양한 사안을 협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터널 공종의 특성상 지하 공간을 제외한 현장 부지 내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터널 공종 이후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며 수년간 유지했던 가설 시설물을 제거하고 드디어 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보신문)을 통해 선배님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고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동료 및 선배님들의 열정 덕분에 프로젝트가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TBM 가동률 1위 일등공신 설계파트 신정성 부장대우



공사 초기인 2013년 1월부터 함께해 누구보다 현장에 대한 애정이 깊은 신정성 부장대우. 싱가포르 MRT 706, 대안 고속철도, 청계천 복원공사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지만 TBM 공사는 이번 현장이 처음이다. 우리 회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TBM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설계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처음으로 접하는 TBM의 설치, 굴착, 해체를 최단 시간에 수행하기 위해 여러 공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동료들과 의견을 비교하고 검토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았죠. 공사 중 연약 지반을 만났을 때 싱크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질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지하수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동료들과 협업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돼 기쁩니다."

현장 운영 및 직원 관리는 내게 맡겨라

관리파트 백인경 차장



9년간의 본사 생활이 이어 2016년 현장에 부임한 백인경 차장은 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내 운영 전반과 예산 관리, 350여 명의 직원 근로자 관리를 총괄했다.

"선배들이 이룬 노력의 산물인 발주처와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고, 수주가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해외 직원이 많았는데, 각자의 문화와 종교에 따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책임감으로 열정을 끌어올려 함께 공사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의 팀 동료 일인 결실을 앞두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BM 시공의 새로운 길을 연 인재 공사파트 EFRAM ARIZO Manager



TBM은 기계 관리도 중요할뿐더러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대처능력 또한 중요하다. EFRAM ARIZO Manager는 끈적끈적한 진흙이 TBM 헤드에 달라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장 전체에 슬러리를 채우는 기존의 방법 대신 물과 혼합제를 반만 채우고 TBM을 가동했다. EFRAM ARIZO Manager의 슬러션은 싱가포르 터널링 학회(Singapore Tunneling Society)에도 소개됐으며 현재 싱가포르 타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I started as Deputy Tunnel Manager and eventually became Tunnel Manager and Construction Manager after Tunneling works. SICA was not an ordinary project. It takes ample time and effort to come up with various plan to tackle the project. It was a challenging project which opened up my mind to different approaches towards such projects. I look forward to having more challenging projects."

소비로 위안 받는 시대, 가심비 소비가 뜬다

트렌드 따라잡기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가심비'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가성비가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가심비는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주는 소비를 말한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산업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는 가심비 소비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김보나 / 참고 도서=『트렌드 코리아 2018』

생필품보다 심리적 만족을 주는 소비가 뜬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들 구매할 때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관건은 소비자가 만족을 느끼는 기준이 소비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생필품을 살 때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살 때 만족의 기준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라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심비의 개념은 몇 년 동안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성비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성비란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효과)이 좋은 것을 뜻한다. 이 가성비의 기준이 한 번 더 진화한 개념이 바로 가심비다. 가심비 소비에서는 성능이라는 객관적인 표준 대신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이 소비를 좌우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도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높아도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가질 수 있다면 소비자는 기꺼이 지갑을 연다.

친환경 제품, 덕질, 시발비용... 소비에서 의미를 찾다

그렇다면 가심비가 높은 소비란 무엇일까.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가격이라는 분모를 줄이거나 심리적 만족이라는 분자를 늘려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조화시키거나 중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양극단을 오가는 소위 '양다리 전략'을 사용한다.

심리적 만족을 높이는 소비에는 크게 위안비용 지출과 '덕질'로 일컬어지는 굿즈 소비, 스트레스 해소에 사용되는 탕진소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유행해 생리대 파동 이후 일반 생리대보다 2~3배 비싼 친환경 생리대가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이 위안비용 지출의 대표적인 예다. 욕시 사태,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 병 등 소비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성비보다 가심비가 높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비싸도 '꽃이면' 사는 가심비 소비,

편의점 도시락에 비싼 디저트 ...

합리성 대신 만족과 불안해소를 위해 구매



사람이 많다. 빨래건조기나 침구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 오염으로부터 소비자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고가의 제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또 하나의 예는 바로 '덕질' 및 취미와 관련된 소비다. 사람은 애정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합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아이돌 등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브랜드와 연관된 상품을 굿즈라고 하는데, 과거의 기념품 개념에서 벗어나 '의미에 대한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굿즈 소비가 늘고 있다. 실용성과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하게 되는 '취향 저격' 상품들이 좋은 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미를 추구할 때도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우선하게 된다. 신조어로 떠오른 '시발비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았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비용, 예를 들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한 날 찾기에 택시를 타는 비용이 바로 시발비용이다.

소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면 무작정 저렴한 제품만 찾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고가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쾌감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 선택한 방법은 '몰아주기'다. 평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특정 분야에는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이다.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유행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밥값보다 몇 배 비싼 디저트를 먹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가치소비라는 큰 틀 안에서 특정 아이템에 쏟음이 커지는 불균형적인 소비 패턴이 나타난다.

기업들, 소비자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던 현명한 소비자들 가심비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을 쓰는 이유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심비·시발비용 외에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혼자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나홀로 소비' 등 최근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를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기준에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소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심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다. 이들은 저성장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체되는 소속감, 과도한 경쟁, 빈발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 밝지만은 않은 사회적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망이 공고했던 과거에는 인간관계를 통해 공허를 메우기도 했지만 현대의 메가트렌드인 '초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 마음이 공허해진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비를 할 때도 지극히 개인적인 주체가 된다.

소비자의 감정이 우선시 되는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도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통신업체 AT&T는 콜센터에서 음식인식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말투에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고객의 감정에 적합한 답변을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은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서비스 특허에 이어 메시지 작성자의 타이핑 속도, 키보드를 누르는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떤 감정에서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예측하는 기술까지 특허를 받았다. 가심비 중심의 소비 패턴은 소비가 더 이상 결핍의 충족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소비 주체의 감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고차원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피플 인사이드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75억 지구촌 대축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열린다. 한국은 9회 연속을 포함해 통산 10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다. 멕시코·스웨덴·독일과 이른바 '죽음의 조(F조)'에 속한 한국이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에 도전장을 냈다. 신태용(號)의 향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월드컵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 신 감독과 긴 통화를 했다.
글=정영재 <중앙일보> 선임기자 / 사진=임현동

'월드컵 16강 신화' 선언! 신태용 대표팀 감독의 출사표

러시아행 비행기에 축구 인생 걸어

인터뷰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나?

거의 비슷하다. '부상자가 많은데 어쩌나' '예선 3전 전패한다고 하는데 감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이다. 내가 다른 나라 감독이라도 한국이 당연히 우리 조에서 '밥'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을 잡으려 할 것이고, 한국 못 잡으면 안 된다 생각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스웨덴이나 멕시코한테 비겨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의 발탁은 언제쯤 생각했나?

U-20 대표팀에서부터 워낙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국내 최강 프로팀 전북 현대 1.5군과 연습경기를 하면서도 힘에서 밀리는 걸 보았다. 그런데 이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부닥쳤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명문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골도 넣고 게임도 자주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월드컵 1차전 상대인 스웨덴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니 '승우가 빠져 들어가는 동작이 좋으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커로 뛰었을 때 문전 앞에서 파울을 얻는 센스도 좋다. 파울을 얻으면 전담 키커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이승우다.

스웨덴전은 어떤 그림이 나오나?

우리가 볼 점유율을 높일 순 있겠지만 그럴 경우 결정적으로 위험한 찬스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스웨덴의 포백은 워낙 견고하다. 평균 신장이 1m87cm이다. 우리가 역습을 할 때 공간이 날 거다. 이때 빠른 친구들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16강 시나리오는 뭐가?

1승1무1패 또는 2승1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이다. 2016 리우 올림픽이나 2017 U-20 월드컵 모두 죽음의 조에서 헤쳐 나왔다. 리우 올림픽에서 조 1위로 올라가겠다고 인터뷰 했는데 다들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멕시코·피지가 속한 조에서 2승1무로 조 1위를 했다. 감독이라는 사람은 막 던지는 게 아니다. 상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비 소집 훈련 모습.

'죽음의조'에서 두 번째 기적(원정 16강)이 될까?

F조 경기 일정

*일시는 한국기준

다시 월드컵의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스웨덴·독일과 한 조(F조)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구분	일시	대진	장소
1경기	6. 18. 00:00	독일 vs 멕시코	모스크바
2경기	6. 18. 21:00	스웨덴 vs 대한민국	니즈니노브고로드
3경기	6. 24. 00:00	대한민국 vs 멕시코	로스토프나도누
4경기	6. 24. 03:00	독일 vs 스웨덴	소치
5경기	6. 27. 23:00	멕시코 vs 스웨덴	예카테린부르크
6경기	6. 27. 23:00	대한민국 vs 독일	카잔



황을 보고 느낌을 갖고 상대를 분석해 보고 하는 거다. 밀릴 수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팬들은 3전3패 예선 탈락을 인정하자고 하던데,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비라인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월드컵은 처음이라는 얘기도 많던데.

그러다 스웨덴 이기면 난리 날 텐데...!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건 없다. 우리가 할 것만 묵묵히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만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남은 가장 큰 변수가 선수들의 부상일 것 같다.

K리그들은 시즌 중에 왔고, 유럽과는 시즌 끝나고 와서 훈련을 강하게 할 수 없다. 평가전 때 꼭 월드컵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무리한 동작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스웨덴 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선수들이 소집되면 매일 컨디션을 체크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월드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들뜰 수 있으니까 섬세하게 관리할 것이다.

코치들과의 역할 분담은 잘 되나?

전경준·차두리·김남일 코치는 내 옆에서 팔과 다리, 눈과 귀가 돼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수석코치인 그란데, 체력 담당인 미나노 코치까지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 훈련 플랜도 다 같이 모여서 짜다. 스페인에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 묻고, 조언을 얻는다. 그러나 결정은 100% 내가 한다. 스페인의 스타일이 있고, 우리 스타일이 따로 있다. 그 친구들도 젠틀하다. '스페인 축구가 강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다. 난 인복(人福)이 있다.

대표팀 감독 자리는 '독이 든 생배' 라고들 한다.

축구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월드컵 때면 3000만 명이 다 감독이 돼서 죽여라 살려라 하는 게 아이러니컬하다. 이들은 대표팀 경기 외엔 관심이 없다. 대표팀은 하늘에



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일본·중국만 가도 관중석이 80% 찬다. 우리는 15~20%인데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물론 좋을 때도 있다. 대우받는 것도 있고, 축구에선 대통령 같은 존재 아닌가. 양면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스스로 잘 조절하려고 한다.

대회 기간 선수들에게 SNS 금지령 내려

기가 죽거나 위축되는 때가 있나?

없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열 받고, 때론 소심해질 순 있지만 마음속에 담고 그리진 않는다. 누가 욕하면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하고 스스로 털어내려고 한다. 위축되고 그런 건 없다. 잠도 하루 7시간 이상 잘 잔다.

지난해 U-20 월드컵을 보면서 신 감독에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절대 아니다. U-20 월드컵 예선 3차전 잉글랜드전에서 이승우·백승호 등 주전을 빼고 지는 바람에 분위기가 처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선수들은 보름 이상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승을 한 뒤 16강 이후를 생각해 주전을 빼고 잉글랜드와 붙었던 거다. 16강에서 포르투갈에 지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리우 올림픽 최종 예선 일본전에서 많이 배웠다. 전반 2대 0으로 앞서면서 '너희 오늘 제대로 걸렸어. 5골 먹어 봐라' 하면서 공격을 퍼붓다가 2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그때 달라졌고, 많이 공부했다.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컵에서 일본한테 4대 1로 이겼을 때도 더 넣고 싶었다. 그러나 자제하고 페이스 조절을 했다.

선수들에게 월드컵 기간 중 SNS 금지령을 내렸다면 사 실인가?

선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모든 관심이 대표팀에 쏠려 있다. 동료끼리 편하게 나누는 메시지 하나, 토씨 하나가 문제될 수 있다. 대표팀 안에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차단하고 내부적인 보안 사항이 흘러나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 되면 통쾌한 반란이 될까?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팬들이 다들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달려가겠다.





세계를 사로잡은 마블 천하

문화칼럼 마블의 첫 히어로 영화 <아이언맨>이 한국에서 개봉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10년 동안 마블은 20여 편의 영화를 개봉하며 해외는 물론 국내에 서까지 마블 히어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히어로 전성시대에 맞게 내년 상반기까지 또 다른 마블 영화가 줄줄이 개봉할 예정이다. 새로운 마블 히어로를 기다리며 헛갈렸던 마블의 세계와 히어로를 알아보자. 글=최원택 칼럼니스트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20세기폭스 제공

마블에 매료된 한국, 한국에 매료된 마블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 평창올림픽은 기대 밖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바로 스키타론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컬링팀의 은메달이다. 두 종목 선수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스키타론의 윤성빈 선수는 헬멧과 유니폼, 별명까지 아이언맨으로,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 김씨인 '팀 김' 여자 컬링팀은 스스로를 '컬벤저스'라 불려달라고 청했다. '컬링'과 '어벤저스'를 합친 명칭이다.

아이언맨과 어벤저스는 마블(Marvel)사의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다. 윤성빈 선수와 팀 김 선수들은 흥행 돌풍을 일으킨 마블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다. 요즘 세대에게 마블 영웅들은 성장기를 함께 거처온 친숙한 캐릭터다. 학부모들은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마블 히어로들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지난달에 개봉한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는 외화 최단 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다. 영화에 이어 드라마, 만화책 그리고 완구와 게임까지 장악한 대중문화 마블의 세례에 한국 대중은 어떤 팔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성원을 보여주고 있다. 마블 영화가 한국에서 성공한 만큼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시작으로 여러 배우와 제작진이 내한했고,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블랙 팬서>는 서울과 부산을 촬영지로 선택했다. 만화에서는 차세대 헐크가 된 천재 소년 아마테우스 조 같은 한국계나 한국인 슈퍼히어로 화이트 폭스가,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에는 K팝 슈퍼 히어로 루나 스노우와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캐릭터까지 등장한다. 이대로라면 마블 영화에서 한국인 슈퍼영웅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블 유니버스, 만화의 세계와 캐릭터가 스크린으로 오기까지

<아이언맨> 이후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까지 세계를 흥분시키며 10년간 승승장구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하 MCU)의 기반은 역시 마블 코믹스에 있다. 1939년 타임리 코믹스로 설립된 마블 코믹스는 1941년 나치와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를 선보였다. 어벤저스는 1963년에, 얼마 전 개봉한 <인피니티 워>의 악당 타노스는 만화에서 1973년에 처음 등장한다. 만화에서 펼쳐낸 수많은 이야기 중 영화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뽑아 재구성한 것이 MCU 영화가 된 셈이다.

영화로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마블의 라이벌인 DC코믹스는 일찌감치 <슈퍼맨>과 <배트맨>을 영화와 드라마로

선보여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는데 말이다. 마블 역시 한국에서까지 방영했던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미국명 헐크)가 대표작으로 있긴 하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는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었다.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던 마블은 자사 히어로 캐릭터들을 여러 영화사에 팔아 강제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당시의 제한적인 특수효과 기술도 실패에 한몫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특수효과는 마블 영상물이 만화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었다. 오죽이나 안 좋았으면 영화 <블레이드>는 마블 원작임을 밝히지 않았을 정도다.

고정관념은 <엑스맨>(2000)에서 깨졌다. 20세기폭스의 <엑스맨> 시리즈가 평단의 호평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성취하고, <스파이더맨>(2002)과 <판타스틱 포>(2005) 등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자 마블은 엑스맨 시리즈 제작자 케빈 파이기를 수장으로 MCU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MCU 주요 멤버는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으로 구성된 어벤저스다. 지금이야 유명한 어벤저스지만 <아이언맨> 전만 해도 영화사들은 영상 판권조차 사지 않았다. 그만큼 MCU의 첫 작품 <아이언맨> 제작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다.

<아이언맨>이 성공했지만 마블 코믹스를 인수한 디즈니에서는 <어벤저스>에 등장할 캐릭터들(캡틴 아메리카, 토르)의 솔로 영화까지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마블의 경영난을 겪어낸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인 아이작 펠머터는 예산 문제로 스토리와 캐스팅까지 바꾸려 했다. 그러나 케빈 파이기는 이런 압력을 견뎌내고 MCU 작품들을 성공시켰다. 또한 그의 목표는 스파이더맨을 시작으로 여러 영화사로 팔려 갔던 이산가족 히어로들을 다시 마블의 지붕 아래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의 휘하에 앞으로 마블은 어벤저스와 엑스맨, 디펜더스, 판타스틱4 등 여러 히어로를 한 스크린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피니티 워> 이후의 마블의 히어로 영화 <데드풀>과 <앤트맨>

며칠 전 개봉한 <데드풀2>의 주인공 캐릭터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제4의 벽'(배우와 관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데드풀은 마블 코믹스 히어로지만,

20세기폭스 소속이다. 따라서 전편에 이어 같은 소속의 '엑스포스'와 활약한다.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미 어벤저스와도 한바탕 어울린 데드풀. 현재 진행 중인 디즈니의 20세기폭스 인수가 완료되면 MCU 영화에 합류해 어벤저스에게 농담 따먹기 등 19금 입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MCU가 마블 코믹스의 본래 모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직후 개봉하는 MCU 영화로 최근 공개한 코믹한 예고편이 본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성인용 코믹 슈퍼히어로 데드풀에 비해 앤트맨은 1편에서 입증했듯 가족용 코믹 슈퍼히어로다. <어벤저스> 이후 영화를 거둬하며 이야기가 복잡해진 다른 히어로에 비해 앤트맨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하여 MCU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게 이해하며 즐겁게 볼 수 있다. 전작에서는 개미처럼 작아지는 능력으로만 활약했다면 이번 개봉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잠시 보여줬던 거인화 능력이나 사물을 크고 작게 만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능력의 코믹 액션을 선보인다.

자극적이고 막나가는 19금 코믹 액션을 즐기고 싶다면 <데드풀2>을, 가족과 함께 신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12세 관람가이기는 하지만) <앤트맨과 와스프>를 권한다.



타노스가 찾아 헤맨 '인피니티 스톤'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악당 타노스의 강력함에 놀랐을 것이다. 헐크를 그냥 때려눕히는 전투력은 물론 그가 하나씩 모았던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에도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MCU는 마블 코믹스에서 '인피니티 줌'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인피니티 스톤'으로 재명명하고 새로운 콘셉트와 능력을 보여준다. <퍼스트 어벤저>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테서렉트(Tesseract)'는 스페이스 스톤으로 순간이동 및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어벤저스3>에 나온 주황색 '소울' 스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거나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유일하게 이전 영화에서 어떤 단서도 드러내지 않았었다. 리얼리티 스톤 '에테르(Aether)'는 현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토르2>에 나온다. 시간을 왜곡하는 능력을 지닌 '아가모토의 눈(Time stone)'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등장한다. 보라색의 '파워(Orb)' 스톤은 헐크를 능가하는 괴력으로 행성까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한다. 마지막 스톤은 '마인드(Scepter)'로 마음을 조정하는 힘이다. <어벤저스1>에서는 로키의 창으로 호크아이를 조정하지만 <어벤저스2>에는 새로운 슈퍼히어로 '비전'으로 탄생하게 된다.

공간, 정신, 힘, 현실, 시간, 영혼의 절대적인 위력을 자랑하는 MCU 최강 아이템인 인피니티 스톤.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릿을 완성시켜 결국 우주 최강 존재가 된다.



좋은 집에 대한 고민

생각의 좌표 얼마 전 주택 설계 하나를 맡았다. 바다가 보이는 재미있는 땅이라 처음 대지를 접하는 순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작업이 되겠구나' 하는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다.



3년을 고민한 건축주의 설계 자료를 보다

얼마 후 건축주와의 첫 번째 미팅을 했다. 대지를 분석한 결과와 초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만든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긴 대지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의 방향과 매스(Mass, 밖에서 보이는 건물의 외부 덩어리 형태)를 잡았다. 코어(Core, 건물 중앙부에 공통 시설을 집중할 부분)는 긴 매스의 중간에 두었고 코어가 건물에 둘러싸여 어두워질 테니 주변으로 중정을 두어 건물에 여유를 주면 좋겠다. 바다를 바라보는 면을 최대한 확보하되 개구부를 갖는 벽을 두어 열고 닫히는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면 바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계획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갈 무렵, 회의 중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짓던 건축주가 수줍은 얼굴로 뭔가를 꺼냈다. 가로세로 1mm 간격으로 줄이 그려진 A1 크기의 방한지. 오랜만에 보는 종이였다. 거기에는 1:100 스케일로 스케치한 건물의 도면이 거칠게 그려져 있었다. 벽과 벽 사이, 때로는 벽과 가구 사이의 간격이 연한 연필로 쓰여 있었다. 900mm, 950mm. 창이 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것, 종이 한쪽 면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가구 사이가 뻐뻐이 들어 있었다. 많은 사진이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도면 이곳저곳에 붙어 있었다. 조금만 손보면 캐드 파일로 옮겨 계획 설계가 끝나도 될 정도였다. 3년을 고민했다고 했다. 건축주가 가져온 자료를 보다



보니 예전 신입사원 시절이 떠올랐다. 어디 청소년 회관 설계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팀원 각자가 계획안을 하나씩 만들어 선생님과 미팅을 했다. 아래 연차부터 한 명씩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팀원들 모두의 설명이 끝나자 "나도 하나 그려봤는데"라면서 당신이 그린 도면을 쓱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게임 오버. 계획안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그림 이번에도?

이런 상념에서 돌아와 다시 방한지를 보는 순간, 아... 솔직히 뭐라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심정이 되었다. 사실 모든 계획에는 이유가 있다. 방을 이곳에 넣은 이유, 화장실을 여기에 둔 이유. 3년을 준비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없겠는가. 문제는 그 이유가 내가 10여 년간 설계해온 방향과 너무 달라서였다. 왜 화장실을 남향에 둘까? 그로 인해 채광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괜찮을까. 거실과 부엌은 어떻게 어두워도 될까? 중정을 두면 훨씬 밝은 분위기가 될 텐데, 왜 세탁실은 이렇게 클까? 계단은 저 방향이 맞는 건가?

계획안에 대한 이유를 묻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건축주의 대답은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가 되어 갔다. 안을 조금 바꾸면 훨씬 좋아질 것 같지만, 건축주는 벽을 조금 움직이는 것에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난색을 보이는 만큼 건축주 표정 역시 실망한 기색이었고 결국에는 얼핏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계획안 때문에 건축주의 눈물을 보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순간, 이걸 아는데 싶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동상이몽

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설계하게 된다.

건축이 조각이나 미술 같은 여타 예술 분야와 다른 지점 중 하나다. 물론 미국 뉴캐넌의 광대한 부지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건물을 지은 필립 존슨이라는 건축가도 있지만, 이런 건 희귀한 경우라 예외로 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충실히 따르면서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인가? 건축가의 계획은 그저 한번쯤 훑어보는 참고 사항이며 주 임무는 건축주가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면을 그려주는 것인가? 잘못된 계층에 보여도 건축주가 원하는 것이니 넘어가면 되는 건가? 세월이 흘러 건축주가 그때 왜 말리지 않았냐고 건축가를 원망한다면,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 건축가는 어느 선까지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배제할 것인가?

그날 회의는 결국 서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며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다. 어떤 건축가는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냥 접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건축주와 냉각기를 갖기로 했으니 답이 없을 것 같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본다. 좋은 집이란 뭘까?

차연호 건축가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책갈피

자연과 예술로 일상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워 줄 미술관과 그곳에서 열리는 전시들을 소개한다. 글=이은주 <중앙일보> 기자 / 사진=국립현대미술관, 뮤지엄 산,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자연을 즐기고, 그림도 보고 ... 풍경이 있는 주말 미술관 산책



[과천 국립미술관] '이정진: 에코-바람으로부터'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꼭 봐야 할 전시 중 하나가 이정진 작가의 사진전이다. 이정진 작가는 국내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유수 미술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 한지에 붓으로 직접 감광 유제를 바르고 그 위에 인화하는 아날로그 프린트 기법으로 작업하는 그의 작품들은 7월 1일까지 만날 수 있다. 과천관을 찾았다면 또 다른 전시, 고 이성자(1918~2009) 화백의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도 함께 보면 좋다. 7월 29일까지 열린다. 주말 오후에는 주차장이 붐비므로 오전 일찍 출발하는 것이 팀. 화~금요일은 서울관과 덕수궁관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 두 개의 기획전 관람료는 2000원.



[원주 뮤지엄 SAN] '일상의 예술: 오브제'展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 자리한 뮤지엄 산(SAN).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가슴을 트이게 하는 자연 풍광도 멋지지만 이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의 안과 밖을 탐험하는 즐거움이 크다. 이곳의 청조갤러리에선 '일상의 예술: 오브제'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 주변에 흔하다곤 하지만 사물(Object)들과 기성품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다. 이번 전시엔 기성 작가뿐 아니라 미술관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 배우 송중기,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등 각계 인사와 공모전을 통과한 일반 시민도 참여했다. 전시는 9월 2일까지다. '한국 미술의 산책 III 조각'展도 함께 열리고 있으니 참고할 것. 관람료 성인 1만5000원, 초·고교생 1만2000원.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용얼거리고 일렁이는'展

현대미술의 전진 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이곳에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 개인의 감정과 감각이 어떻게 표출되고 또 전이되는지를 바라본 국내외 작가 13인의 시선을 영상과 설치 작품 등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오늘의 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용얼거리'로, 집단의 반응을 '일렁거리'로 표현한 전시 제목이 재미 있다. 전시작 중 영국 에드 앤트킨스 작가의 영상 작품 '쉬 소리를 내는 자'는 거대한 싱크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렸다는 미국 플로리다의 한 남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든 남성 캐릭터가 불안한 표정으로 혼자 떠돌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무료이며 6월 24일까지 열린다.



Value Creator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 새긴 71년의 역작

한국 건설의 역사 그 자체인 우리 회사가 25일 창립 71주년을 맞았다. 우리 회사는 1966년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해 현재까지 전 세계 80여 개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세계지도 위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창립을 기념해 국가별 첫 진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글·정리=강은비

현대건설 해외 진출 국가 현황 6대륙 59개국 831개 공사 (2018년 5월 기준)

우리 회사는 1947년 창사 이래 국내는 물론 해외 59개 국가에 진출해 끊임없는 건설 신화를 이룩하고 있다. 태양이 타오르는 적도에서 지구 끝 남극까지,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빛나는 아이디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현재까지 총 831개 공사(누적수주액 12조7579억원)를 수행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해외 프로젝트들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의 혼을 담고 있다. 1966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현대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국가별 첫 프로젝트를 모았다.

아시아 23개국

- 네팔 (2차 도로 개선사업, 1992)
- 대만 (고속철도 C240 공구 공사, 2000)
- 동티모르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공사, 2015)
- 마카오 (마카오 엔터테인먼트타워센터 공사, 1999)
- 말레이시아 (빈룰루 삼해항 부지 정리공사, 1979)
- 몽골 (발전소 개 보수공사 감리, 1995)
- 미얀마 (나웅카트 다목적댐 공사, 1981)
- 방글라데시 (600MW GTPS 바지-운송-준설-견인, 1999)
- 베트남 (캄란만 준설공사, 1966)
- 브루나이 (제루동 방파제 공사, 1996)
- 스리랑카 (사마날라웨와 수력발전소 롯트 2 토목공사, 1988)
- 싱가포르 (플라우테콩 매립공사, 1981)
- 아제르바이잔 (수력발전소 기술용역, 1994)

-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확장공사, 2013)
- 인도 (나트파 자크리 수력발전소 공사, 1993)
- 인도네시아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 1973)
- 일본 (도쿄 이스트-21 공사, 1990)
- 중국 (상하이 현대전차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1994)
-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1996)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 공사, 1998)
- 파키스탄 (타르벨라댐 공사, 1987)
-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본점 신축공사, 1986)
- 홍콩 (타이위 주택단지 공사, 1985)

중남미 5개국

- 베네수엘라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2012)
- 브라질 (포르토벨로 34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00)

- 우루과이 (폰타델타그레 복합화력발전 공사, 2012)
-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2014)
-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2012)

북미/태평양 6개국

- 괌 (안테나 설치공사, 1969)
- 미국 (알래스카 허리케인 교량공사, 1970)
- 캐나다 (프레이저강 사장교 공사, 1986)
- 파푸아뉴기니 (리무 수력발전 토목공사, 1972)
- 피지 (싱가토카 교량 건설 설계 및 감리용역, 1990)
- 호주 (번버리항 준설공사, 1970)

유럽 6개국

- 네덜란드 (오이스터 실형용 원자로 개선공사, 2014)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호텔 현대 공사, 1995)
- 루마니아 (페트루브라지 500MW 열병합발전소 공사, 2000)
- 불가리아 (소피아 장애인 복지센터 공사, 1998)
- 영국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공사, 1996)
- 터키(보스포루스 제3대교 공사, 2013)

중동 11개국

- 레바논 (전력복구공사 (PKG.B. 송전선), 1993)
-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 공사, 1975)
-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해군기지 해상공사, 1975)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발전소 공사, 1978)
- 예멘 (132-33kV 변전소 공사, 1979)
- 오만 (미나 알 파할 정유공장 공사, 1980)
- 요르단 (와디에시르 지역 하수처리시설 공사, 1993)

- 이라크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 1978)
- 이란 (반다르 압바스 동원훈련조선소 공사, 1975)
- 카타르 (도하 웨라톤호텔 공사, 1979)
-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만 확장공사 1·2단계, 1977)

아프리카 8개국

- 가나(정유공장 저장시설 설계용역, 1990)
-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공사, 1980)
- 모잠비크 (모아티즈 600MW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2010)
- 알제리 (아인아르넛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2)
- 우간다 (진자 교량 공사, 2014)
- 이집트 (SAID항 동부 준설 및 해양공사, 1999)
-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1)
- 튀니지 (튀니스 스포츠센터 공사, 1997)